

# 국어 영역

## ▣ 화법 / 작문

### 1. 발표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①

2문단에서 율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4문단에서 율로 라이프의 확산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율로 라이프를 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2.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 [정답] ②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다른 대상에 빗대어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④ 3문단의 ‘예를 들어 전세금을 빼서 세계 일주를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고가의 전자 제품을 사는 것 등이 율로족의 소비 경향이라 할 수 있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자료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4문단의 ‘(차분한 어조로)’, 5문단의 ‘(부드러운 어조로)’에서 언어적 표현이 활용되어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청중의 반응 분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청자3’의 ‘나는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겠어.’에서 행동 변화를 다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자1’의 반응에 행동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

① ‘청자1’의 ‘그런데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전세금까지 빼서 세계 일주를 떠나는 율로족의 행동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자2’의 ‘율로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청자3’의 ‘작년에 유행했던 ‘휘게 라이프’도 결국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건데, 율로 라이프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청자1’의 ‘그동안 ‘율로’라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몰라 궁금했었는데, 이 발표를 통해 율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돼서 유익했어.’와 ‘청자2’의 ‘나는 ‘미니멀 라이프’가 율로 라이프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참 흥미로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정답] ⑤

박사의 마지막 발언 중 ‘예를 들면 시민들이 도시 숲 관리 봉사단에 참여하여 도시숲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에서 구체적 예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바로 잡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학생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박사의 다섯 번째 발언 중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박사의 세 번째 발언 ‘식막한 도시 속에서 숲이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발화의 기능 파악 [정답] ③

㉓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시숲이 주목받게 되었다는 박사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이며, ㉔는 도시숲 관리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박사의 답변에 대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들은 모두 작문 내용인 ‘도시숲의 가치와 도시숲 보존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관련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다.

### 6. 말하기 내용 파악 및 작문 계획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가)에서 박사는 도시숲 조성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학생의 발언에 동의하여 도시 숲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박사의 의견만을 인용했을 뿐, 이에 공감하는 시민의 인터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① 박사의 다섯 번째 발언에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였으며, (나)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닌 도시숲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도시숲이 지닌 긍정적 기능을 부각하고 있다.

② 박사의 여섯 번째 발언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평균 8.32㎡로 세계 보건 기구의 권고 기준인 9.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나)에서 ‘서울시의 경우 4.4㎡로, 런던(27㎡)의 6분의 1, 뉴욕(23㎡)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서술하여 서울과 다른 나라의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

④ 박사의 세 번째 발언에서 ‘식막한 도시 속에서 숲이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하였으며, (나)에서 ‘숲을 15분간만 바라봐도 콩팥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농도가 15.5% 줄고 혈압은 2.1%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서술하여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고 있다.

⑤ 박사의 다섯 번째 발언에서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서 ~ 이 과정에서 나무가 미세먼지도 함께 흡수한다’라고 하였으며, (나)에서 ‘국립 산림 과학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7. 초고에 대한 검토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①

1문단에서 ‘도시숲은 도시 생활권 내의 숲,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유형의 녹색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서술하여 도시숲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대상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4문단에서 ‘여가 공간의 역할과 공기 정화의 기능을 지닌 도시숲’이라고 서술하여 앞에서 서술한 도시숲의 긍정적 기능을 요약하고 있으며, ‘도시숲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구된다’라고 서술하여 3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있다.

③ 1문단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게 해 준다’에서 ‘유지하게’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게’를 뜻하는 말로, 해당 문장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변함없게 해 준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문맥상으로는 도시숲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 준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2문단에 사용된 접속어 ‘하지만’의 앞뒤 문장은 공통적으로 도시숲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순접의 접속어인 ‘그

리고’로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은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어이다.

⑤ 3문단의 ‘다행히 도시숲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잇따라 도시숲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에서 주어진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와 서술어인 ‘점이다’의 호응이 맞지 않다.

### 8. 작문 계획의 반영 순서 파악 [정답] ③

‘스마트폰과 같은 각종 모바일 기기의 등장은 뉴스 소비의 시공간적 제약성을 감소시켜 뉴스를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했다.’는 ㉔에 해당한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SNS를 통해 뉴스를 더욱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 SNS에 의한 뉴스 이용률이 종이 신문에 의한 뉴스 이용률을 앞서게 되었다.’는 ㉓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SNS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㉑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문 협회 산하 연구 기관인 아메리칸 프레스 인스티튜트(API)가 최근에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언론이 처한 가장 큰 위기로 ‘가짜 뉴스’를 든 것만 보아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㉒에 해당한다. 따라서 ㉑ - ㉒ - ㉑의 순서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가)는 SNS에 의한 뉴스 이용률이 종이 신문에 의한 뉴스 이용률을 앞서게 되었다는 자료이고, (다)는 루머 확산이 집단 극대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소개한 자료이다. (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이라고 하였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다)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의 자료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나)에서는 ‘가짜 뉴스를 통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흑색선전이 특정 후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에서는 ‘집단 극대화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 통합이 더욱 어려워’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가짜 뉴스가 특정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을 부각할 수 있다.

### 10. 조건에 맞는 글쓰기 [정답] ③

‘폭포수가 폭포에서 계속 쏟아지듯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에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을 폭포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가짜 뉴스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에서 가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①, ④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뉴스를 접하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을 전염병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을 택시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접하는 독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문법

11. 반의 관계 이해

정답 ②

①과 ②는 느낌이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③는 부정성을, ④는 긍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와 ⑥는 시간성을 지니는 단어이지만 ⑦는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쯤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⑧는 시간적인 연속성을 나타낸다. 즉 시간의 연속성 측면에서만 의미 성분이 다르므로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⑨는 부모이면서 어른이고 기혼인 남성을 의미하지만, ⑩는 여성을 의미하며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어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기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⑨와 ⑩는 둘 이상의 의미 성분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⑪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의미하고, ⑫는 공간성을 지니면서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⑬와 ⑭는 반의 관계가 아닌 유의 관계라 할 수 있다.

12. 합성어의 의미 형성 양상 이해

정답 ②

‘좌우 5’는 ‘좌’와 ‘우’가 지닌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에서 확장된 융합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좌우 4’는 ‘좌’와 ‘우’가 지닌 각각의 대조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두 단어가 융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대조되는 두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좌우 1’은 ‘좌’의 의미인 ‘왼쪽’과 ‘우’의 의미인 ‘오른쪽’을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2문단에서 두 단어가 지닌 의미를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낼 때, 두 단어는 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 1’은 ‘상’과 ‘하’가 반의 관계이고 두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합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중심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상하 3, 4, 5’는 ‘상’과 ‘하’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단순히 합친 의미라기보다는 그에서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조되는 두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을 일으켜서 결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밤낮’은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일 때에는 품사가 명사이나, 확장되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이라는 융합 의미로 쓰일 때에는 품사가 부사이다. 따라서 의미가 확장되어 융합 의미로 쓰일 때 품사가 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3. 동작상의 이해

정답 ③

‘나는 말을 타고 있다.’는 말을 타는 중이라는 진행상과, 말을 탄 상태가 지속되는 완료상으로 해석 가능하여 중의성을 띤다.

- ① ‘-어 있다’는 완료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꽃이 핀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 ② ‘-어 버렸다’는 완료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밥을 먹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숙제를 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할머니는 콩나물을 사면서 값을 흥정했다.’에서는 ‘-면서’에 의해 콩나물을 사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4. 중세 국어 의문문의 이해

정답 ③

‘이 어떤 사람이냐’는 의문사 ‘어떤’이 등장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고, 체언 ‘사람’으로 문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는 의문 조사 ‘고’가 쓰여 ‘사름고’가 되어야 한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는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쓰인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지만, 주어가 ‘너’라는 2인칭 주어에 해당하므로 ㉡는 ‘-나다’가 사용된 ‘안다’가 적절하다. ‘이 딸이 너희 중이냐’는 ‘예-아니오’를 묻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고, 체언 ‘중’으로 문장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는 의문 조사 ‘가’가 쓰여 ‘중가’가 되어야 한다.

15. 음운 변동의 이해

정답 ②

㉠은 ‘빌’, ‘살’의 받침 ‘ㄹ’이 탈락하면서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으며, ㉡은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ㄹ’ 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로 음운의 개수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은 ‘ㅎ’과 ‘ㄱ’이 합쳐져 ‘ㅋ’,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은 ‘ㄷ, ㅌ’이 ‘ㄴ’ 모음과 만나 ‘ㄸ, ㅊ’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③ ㉢의 ‘짓는’은 치조음인 ‘ㅅ’이 비음인 ‘ㄴ’과 만나 비음인 ‘ㄴ’으로, ‘항로’는 유음인 ‘ㄹ’이 비음인 ‘ㅇ’과 만나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동화가 일어났으나, ㉠은 동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음운이 탈락한 것이다.
- ④ ㉡은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ㄹ’ 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나, ㉢은 ‘ㄴ’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 ⑤ ㉣은 뒤의 모음 ‘ㅣ’의 영향으로 앞 자음 ‘ㅌ, ㄷ’이 ‘ㅊ, ㅈ’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으며, ㉡에서 ‘짓는’은 치조음인 ‘ㅅ’이 비음인 뒤의 ‘ㄴ’의 영향으로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역행 동화가 일어났으나, ‘항로’는 유음인 ‘ㄹ’이 비음인 앞의 음운인 비음 ‘ㅇ’의 영향으로 비음인 ‘ㄴ’으로 바뀌는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 독서 / 문학

[16~21] (인문)

안영석, 『순자 사상의 도덕적 인식과 실천』  
 이 글은 순자의 심성론과 도덕적 인식론, 도덕적 실천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자는 본성을 통제하는 주체적 존재인 심이 인식 기능과 실천 기능을 지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도와 예를 인식하고 실천한다고 주장하였음을 밝히고 도를 실천하는 과정을 심이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는 치기(治氣)와 끊임없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誠)으로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16. 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⑤

6문단에서 허일이정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설명하고 있지만, 순자가 허일이정이 어떠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① 2문단에서 순자의 심성론에서 성(性)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저절로 얻게 된 자연 본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7문단에서 순자에게 도덕 실천은 본성에 기초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활동을 중정의 도로 다스려 나가는 활동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순자는 예

를 따르는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5문단에서 순자에게 학문이란 경전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결국 성인이 되는 것으로써 끝을 맺는 것이며, 이러한 적학의 과정을 통해 도를 인식하는 것이 순자가 주장한 학문의 기본적인 방법임을 설명하고 있다.
- ④ 4문단에서 도는 근본 원리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핵심 정보의 이해

정답 ①

8문단에서 치기와 성, 양 측면의 요소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방식으로 마음의 수양을 이루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순자는 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심이 인식 기능을 통해 도와 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적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심이 치기와 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식은 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③, ④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핵심 개념의 이해

정답 ④

4문단에서 순자는 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심이 인식 기능을 통해 도와 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이상적인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방법으로 ㉠을, 후자의 방법으로 ㉡을 제시하였다. 즉 ㉠을 통해 도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려면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 마음 상태가 확보되어야 ㉡이 가능해져 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① 8문단에서 순자는 진실한 마음으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득되어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인 인격의 완성을 위해 추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7문단에서는 순자가 중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예를 실천함으로써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은 ㉡이 아니라 중용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성정의 치우침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8문단에서 순자는 성을 도덕 수양의 기본적인 동력이자 완성된 인격 상태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은 도덕 수양의 동력이고, ㉡은 인격이 완성된 상태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은 도와 예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고 ㉡은 그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마음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 가능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인 것이다. 또한 도를 실현하는 것은 심의 실천 기능으로 가능한데, ㉠과 ㉡은 심이 도와 예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인식한 도를 ㉡으로 실현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④

(다)에서 성인(聖人)인 요임금은 수양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문단에서 순자는 성인이란 타고난 본성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심이 극진하게 작용하여 타고난 성정(性情)을 변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 행위 양식과 문물, 제도 등을 창안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킨 자로 인식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다)에서 요임금이 수양으로 스스로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회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킨 자로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에서 요임금이 수양으로 스스로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순자가 말한 성인(聖人)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4문단에서 순자가 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적학과 적려, 숙찰을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 사람이 널리 배우는 것은 적학, 자신에 대해 매일 생각하는 것은 적려, 자신을 살피는 것은 숙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얹이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예와 도를 인식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고 생각하고 살피면 얹이 밝아진다는 것은 순자가 말한 도를 인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② 7문단에서 순자는 심이 실천 기능으로 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치기(治氣)와 성(誠)으로 설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誠)은 인식한 도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끊임 없이 도덕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득되어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언급한 '도덕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순자의 '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순자가 말한 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③ 4문단에서 순자는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심이 올바른 도를 파악하고, 그 도를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는 올바른 도를 인식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도덕 가치를 실천하면 본성을 교화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올바른 도를 인식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는다고 한 것에는 본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3문단에서 순자는 성인이란 타고난 본성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지라도 심의 작용을 극진하게 발휘하여 자신의 성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모습까지도 변화시킨 자로 인식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에서는 요임금이 하면서 모든 것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성인의 본성에 대한 순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사상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 [정답] ④

5문단에서 순자는 학문을 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자의 '예'는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보기>에서 주자는 '예'가 실천 대상인 '리'에 포함되는데 심은 이러한 예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의 '예' 역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① 7문단에서 순자는 심의 노력으로 기질의 치우침을 다스리는 치기를 자신의 도덕적 실천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주자는 기질의 치우침을 올바르게 바꾸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와 주자는 모두 기질의 치우침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순자의 '심'은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인 감정, 욕구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의식적인 판단으로 본성을 통제하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주자의 '심'은 대상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순자와 주자는 모두 '심'을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순자의 '정'은 좋아함과 싫어함,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을 통칭하는 '성'은 인간이 나면서부터 저절로 얻게 된 자연 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주자의 '정'은 생물적 본능, 생리적 욕망, 심리적 정서를 포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자의 '정'과 주자의 '정'은 모두 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간이 나면서부터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2문단에서 순자의 '성'은 자연 본성으로, 이에 따른 행위는 본성의 이기심, 질투, 증오 등으로 인해 상호 투쟁과 무절제함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주자의 '성'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표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자의 '성'은 주자의 '성'과 달리 인간의 상호 투쟁과 무절제함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21. 바꿔 쓰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 '답습(踏襲)하는'은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하는'의 의미이므로 '따르는'과 바꿔 쓸 수 없다.
- ① '교정(矯正)하는'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의 의미이므로 '바로잡는'과 바꿔 쓸 수 있다.
- ② '구성(構成)되어'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져'의 의미이므로 '이루어져'와 바꿔 쓸 수 있다.
- ③ '창안(創案)하고'는 '어떤 방안,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생각하여 내고'의 의미이므로 '생각해 내고'와 바꿔 쓸 수 있다.
- ⑤ '도달(到達)하게'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게'의 의미이므로 '이르게'와 바꿔 쓸 수 있다.

**[22~26] (과학)**

강인남, 「아름다운 빛을 내는 신기한 유기 분자」  
유기 분자의 구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유기 분자가 다양한 빛을 내는 원리를 밝히고 이를 이용한 유기 전계 발광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안트라센과 같은 유기 분자는 단일 결합과 파이 전자에 의한 이중 결합이 서로 교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액 길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이 전자에 외부 에너지를 가하면 빛을 낸다. 이때 공액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빛을 낼 수 있다.

**22. 글의 개괄적 정보 파악** [정답] ②

3문단에서 유기 분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파이 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파이 전자의 성질에 대해 설명할 때 빛의 파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빛을 식별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 ① 2문단에서 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가 되고, 다시 바닥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서 빛을 낸다고 하여, 분자의 성질을 바탕으로 분자가 빛을 내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1문단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착용하는 벨트, 텔레비전 등의 경우와 같은 분자가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④ 5문단에서 유기 분자의 발광 원리를 이용한 유기

전계 발광 현상이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공명 구조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안트라센 분자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3. 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 ②

2문단의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일 때 사람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다.'를 통해 유기 분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항상 가시광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① 3문단에서 a와 b 구조식의 전체적인 분자 구조는 다르지 않지만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형태가 바뀌었다고 하였다.
- ③ 3문단에서 '안트라센처럼 분자의 구조를 하나의 구조식으로 나타낼 수 없고 몇 개의 구조식이 중첩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한다.'를 통해 안트라센 분자는 하나의 형태로 구조식을 나타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④ 3문단에서 '전자가 분자 내의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그 분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비편재화를 통해 분자 자체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유기 분자는 일반적으로 비금속 원자인 탄소와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원자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24. 글의 내용과 외적 증거에 따른 추론** [정답] ③

2문단에서 분자는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낸다고 했으며, 4문단에서 공액 길이가 길수록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는 줄어들고, 빛 에너지는 빛의 파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유기 분자의 공액 길이를 길게 하면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어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적어지므로, 빨간색 계열에 가까운 빛을 낼 수 있다.

- ④ 유기 분자 내의 전자의 이동 범위가 좁다는 것은 그만큼 공액 길이가 짧다는 것이므로, 이때는 들뜬상태의 에너지와 바닥상태의 에너지의 차가 커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많으므로, 유기 분자는 파장이 짧은 빛을 낸다. 따라서 노란색 계열의 빛은 파란색 계열의 빛에 비해 유기 분자 내의 전자의 이동 범위가 넓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 ⑤ 유기 분자에 빛 에너지를 가하는 시간을 줄이면 분자가 받는 에너지가 적어지며 전자가 흡수하는 에너지도 적어진다. 그러면 바닥상태와 들뜬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 것이므로, 방출되는 빛 에너지도 적어져 줄이기 이전에 나온 빛보다 오른쪽 방향의 빛을 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5. 세부 정보 이해** [정답] ②

5문단에서 정공은 산화 반응의 결과로, 전자는 환원 반응의 결과로 각각 생성된다고 했으므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로 정공과 전자가 생성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③

- ㉓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㉔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㉑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㉒에서는 '문서, 서류, 편지 따위를 제출하거나 보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② ㉖는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사용

되었으나, ②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 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①는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④에서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③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⑤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27~31] (현대 소설+극) —

(가) 「분단 문학의 의의」

이 글은 우리 문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분단 문학이 지닌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분단 문학은 분단 현실의 모순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가족사와 민족사를 중첩시켜 분단 상황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분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강백의 희곡 「호모 세파라투스」는 자발적 경계인의 인물 유형을 창조하여 현실 상황에 대항하며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나) 임철우, 「아버지의 땅」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따른 민족의 아픔과 한 가정 내의 갈등을 중첩시켜 분단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분단 현실에 따른 징후를 미시적으로 조명하면서 거시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통한 분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발췌 지문에서는 ‘나’가 발굴한 유해를 매장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강백, 「호모 세파라투스」

분단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이데올로기적 대립 현상을 예리하게 비판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생겨난 분단 현실에서 나타난 통일의 염원이 얼마나 모순되고 허황된 것인가를 등장인물을 통해 말하고 있다. 우화적 기법을 통해 우리가 처한 사회적 현실을 다각도로 풍자하고 있다.

27. 서술상 특징 및 극 전개상 특징 파악 [정답] ①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서술되어 아버지 대한 ‘나’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음이 제시되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에서는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등에서 독백적인 어투로 서술자인 ‘나’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다)에서 장자와 아버지는 발행인에게 결혼에 대한 기사를 실어 줄 것을 요청하나 거절당하고, 장자는 학장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나 이 역시 거절당한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의 반복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다)에서 발행인은 “가만 있자, 이 정도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셈인데...”, “글쎄... 그것도 어렵겠는데...” 등의 대사에서 휴지를 두는 발화 방식을 통해 상대의 요구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회피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장자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대사에서 휴지를 두는 발화 방식을 통해 학장에 대해 실망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다)에서 ‘중탑 꼭대기의 종’이 울리는 소리에 대해 ‘장자’는 ‘땡그렁, 사랑하러! 땡그렁, 사랑하

라!’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여 이쪽과 저쪽의 화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장은 ‘대부분의 사람들 귀엔 우리 대학의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허공을 울리는 쇠소리’로만 들린다고 하여 여론은 이에 대해 무관심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종소리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통해 상황에 대한 장자와 학장의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④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불길함을 퍼뜨린다는 진술로 볼 때, 까마귀는 배타적이며 부정적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까마귀가 분단 현실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을 나타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외적 증거에 따른 내용 이해 [정답] ⑤

장자는 발행인에게 자신과 저쪽 여자와의 결혼을 신문에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학장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만 축하하겠다는 학장에게 서운함을 표한다. 장자의 이러한 대사로 볼 때, 장자는 저쪽 여자와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양쪽의 이분법적 대립 논리를 거부하고, 양쪽을 통합하고자 하는 장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① 발행인은 여론을 핑계로 장자의 결혼 소식을 신문에 보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고착화된 분단 현실에서 통합을 절실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기득권층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발행인은 분단 극복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장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② 장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학장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축하하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을 뿐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척하겠다는 말을 통해 현실적 제약 때문에 장자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침묵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시장은 결혼식장으로 시청을 제공하며 주례를 맡고 결혼을 공개적인 행사로 치르려고 하는 등 장자와 저쪽 여자의 결혼을 주선하여 양쪽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발적 경계인으로 볼 수 있다.

30. 소재의 의미 이해 [정답] ②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겨서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라는 진술로 볼 때, ‘눈물’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했던 세월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눈물이 ‘나’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④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 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라는 진술로 볼 때, ‘함박눈’은 순백의 눈으로, 순수를 되찾아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증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 ⑤

종소리가 허공을 울리는 쇠소리로만 들린다는 말에는 분단된 현실이 고착되어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학장이 자신의 ‘침묵’에 대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 [32~35] (현대 시+수필) —

(가) 김해강, 「봄을 맞는 폐허에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현실 극복에 대한 염원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먼저 봄을 맞은 정경과 그것을 지켜보는 쓸쓸함을 드러내고, ‘무너진 성터’라는 구체적인 폐허의 공간을 제시하는데, 이는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국토를 상징한다. 그리고 부정적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던 화자가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무의 모습을 보며 현실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 고재중, 「감탄과 연민」

인간의 삶에서 감탄과 연민이라는 정서가 지니는 의미와 소중함을 성찰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감탄과 연민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초라한 일상을 신의 나날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2.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에서 화자는 ‘새벽바람에 달음질치는 / 동무’의 모습에서 ‘철벽을 깨트리고 / 새 빛을 실어 오기까지’ 달리는, 즉 장애물을 깨트리고 새 시대가 올 때까지 노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찾아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 글쓴이는 금강화를 보고 연민을 느끼는 친구의 모습에서 인간에게 연민을 느끼며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찾아내고 있다.

3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①

[A]에서 ‘봄비’가 그치는 현상을 ‘고요히 깃을 걷는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무생물인 ‘봄비’를 생물인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활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B]의 ‘반찬이 강을 건너왔네’는 무생물인 ‘반찬’을 강을 건널 수 있는 ‘생물’에 비유한 활유법을 활용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활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A]는 ‘땅우’와 ‘옛 뒤안’을 비교하고 있으며 [B]는 ‘김치’와 ‘당신 마음’을 비교하고 있다.

34. 감상의 적절성 이해 [정답] ①

‘밭자취 어지러운 옛 뒤안’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은 쓸쓸함이다. 이는 자연에는 봄이 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밭자취 어지러운 옛 뒤안’은 일제 강점기에 힘들게 살아왔던 고난과 역경의 흔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폐허의 공간에 봄이 찾아온 것에 대한 감격이 내포된 것이라고 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⑤ ‘새 빛을 실어 오기까지’, ‘그 걸음이 튼튼하기만 비노라’에서 ‘새 빛’은 새 시대, 광복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새 시대가 오기까지 동무의 달음질치는 걸음이 튼튼하기를 기원하는 모습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비참한 현실이 변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 어구의 의미 이해 [정답] ④

㉞은 ‘생자필멸(生者必滅)’ 즉,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법칙에 따라 인간도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민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절대적 존재에게 복종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슬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6~39] (사회)**

홍금우, 「독점 시장의 이해」

독점 시장, 독점 기업, 독점 상품의 개념을 설명하고, 독점 시장의 주요한 특징인 진입 장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점 시장의 진입 장벽 원인으로 규모의 경제, 원료의 독점, 법적인 제한 등을 들고 있으며, 독점 시장의 부정적 측면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36.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①

2문단의 ‘독점 상품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독점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한다면 수요가 쉽게 옮겨갈 수 있어 시장을 독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에서 대체제가 존재할 경우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 ⑤

㉠는 새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특허를 냄으로써 독점을 계속 이어간 사례에 해당하므로, 3문단의 ‘법적인 제한도 진입 장벽을 발생시키는데, 정부로부터 인·허가권, 특허권, 판권 등을 부여받음으로써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자에게 12년간 특허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이를 이용하여 그 발명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는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는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독점함으로써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3문단의 ‘원료의 독점이란 어떤 상품을 만드는 원료를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기업들은 원료를 구입하지 못해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 결과 원료를 독점한 기업만이 상품을 생산하게 되어 자연히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는 생산 설비의 확장으로 알루미늄의 가격을 낮추어 책정함으로써 독점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3문단의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 이와 달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자연히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다른 기업들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자연히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독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8. 사례 발생 원인의 추론** 정답 ⑤

〈보기〉에서는 ◇◇ 지역의 군부대에 독점 사업권을 따냈지만 오히려 사업권을 따내기 이전보다 이윤이 줄어든 회사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독점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고 이 사실을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생산성이 저하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39. 사례의 타당성 판단** 정답 ④

기업이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가격 정책을 펼치도록 정부가 유도하면 기업의 이윤은 더욱 극대화된다.  
②, ③ 마지막 문단의 ‘또 한 가지는 독점 기업의 행위에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주로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독점 기업의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독점의 이윤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 관련된 사례로 볼 수 있다.

**[40~42] (고전 산문)**

작자 미상, 「반씨전」

동서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로, 제시된 부분은 채씨와 반씨가 대립하는 동시에 가권(家權)의 행사와 관련한 위진과 위홍 간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주로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 드러나며, 죽은 양씨가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이 소설은 여성 동서 간의 갈등이 가권을 둘러싼 남성들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느 가정 소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40. 서술상 특징의 이해** 정답 ⑤

제시문에서 집안에서 묘하의 여막으로 공간이 이동되기는 하지만, 빈번한 공간 이동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 ①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비창해하지 않을 이 없더라.’, ‘양부인의 신령이 어찌 감동하지 아니하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반씨와 위홍이 묘하에서 통곡을 하니 ‘일월이 무광(無光)하더라.’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자연물의 상태, 즉 해와 달이 빛을 잃은 상태를 통해 반씨와 위홍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죽은 양부인이 나타나 위홍에게 글을 가르쳐 원수를 갚게 하라 말하는 부분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 말을 하는 비현실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채씨, 맹씨, 위진 등에게 원수를 갚는 사건이 전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①

[A]에서는 위홍이 양부인의 유언을 저버리는 숙부의 태도는 문중의 공론에도 맞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에도 불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B]에서는 위홍이 예문에 근거할 때 장자 장손이 발상함이 당연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문족이 다 모였으니 누구와 함께 상을 대신할지를 결정하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문중의 공론을, [B]는 예문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A]에는 숙부가 왕모의 유언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는 언급은 있으나 장자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B]에는 장자 장손이 발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장손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A]에서 왕모의 유언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며, [B]에서 장자 장손이 발상하는 것이 예문에 당연한 일이라고는 하였으나 부친의 가르침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2. 감상의 적절성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 드러난 갈등의 기저에 입신을 절대시하는 공명주의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홍의 입신을 요구하는 양부인의 당부는 자신의 노고를 보상받기 위해 자손의 입신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신을 원수를 갚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위진이 양부인의 유언을 저버리려 하자 반씨는 채씨가 상주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진은 크게 화를 내며 형이 안 계시니 자신이 일을 주관할 것이라며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위진 자신이 가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문족들이 양부인의 장례를 둘러싼 위진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 흠어지자 통곡하는 위홍의 모습은 가문의 명예와 질서가 무너진 데 대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홍의 모습은 가문의 명예와 질서를 중시하는 당대 가치관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위진은 장자 장손이 발상함이 예문에 당연하다고 밝히는 위홍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며 자신의 뜻대로 상을 치르고자 한다. 이에 위홍은 문중의 공론을 근거로 숙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자신이 발상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숙부에게 맞선다. 이는 가문 내에서 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남성들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43~45] (고전 시가)**

김득연, 「산중잡곡」

김득연이 「지수정가」를 짓고 난 다음 남은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단가 형식의 49수로 표현한 작품으로, 자연 속을 유유자적하는 작가의 생활 태도, 시문과 사장에 대한 작가의 생각, 인생무상과 몸이 늙었음에 대한 탄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4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 ③

- (다)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① (가)의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깥 물 마시니’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나타난다.
- ② (나)의 ‘백운(白雲) 창송(蒼松)’은 ‘흰 구름 푸른 소나무’의 의미로,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어를 사용해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의 ‘이 몸이 또 엿더호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호노라’에서는 ‘이 몸이 또 어떠하뇨?’라고 묻고, ‘무릉인인가 호노라’라며 답변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의 ‘아마도 꼴 절멸 인생(人生)이 아니 놀고 엿데리’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리’는 ‘해라 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사리로 미루어 판단하건대 어찌 그러할 것이냐고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44. 외적 준거를 통한 이해** 정답 ④

‘홍하’는 ‘붉은 노을’로, 화자는 붉은 노을이 가득한 골짜기에 있다. 화자는 붉은 노을이 가득한 골짜기를 도원, 즉 무릉도원으로 여기며, 그곳에 있는 자신을 무릉인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와 관련된 시구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자연 속에서 빈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의 화자는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밝은 달’을, 겨울에는 ‘창송’을 바라보고 있다. ‘불근 들’은 화자가 ‘추산’에 감상하는 것으로 강호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45.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 ⑤

(바)의 ‘아니 네고 어제리오’와 〈보기〉의 ‘아니 녀고 엿덜고’에서 공통적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① (바)에는 연쇄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보기〉에만 사용되었다.
- ④ (바)와 〈보기〉 모두 화자가 혼잣말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